



# 기독일보



2024년 5월 3일 금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36호

## 美 연합감리교회, 동성애자 목사안수 허용



연합감리교회(UMC)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UM News

### 총회에서 692대 51로 결정... 다만 개체교회 자율성은 보장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지난 40년 동안 금지해 온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개체교회는 동성애자 목사 파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성결혼 개최 및 주례 여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UMC)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총회를 진행 중인 UMC는 1일(현지 시간) 대의원 692명의 압도적 찬성과 51명의 반대로 이 같은 안건 등을 가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UMC는 지난 1984년부터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사 후보자를 안수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총회 결정으로 40

년 만에 이 금지 규정이 사라졌다. 이 매체는 이에 대해 "UMC의 성소수자 교인에 대한 오랜 제한을 조용히 해제하고 있는 이번 총회의 추세를 이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승인된 법안은 목회자와 교회 동성결혼식을 주례하거나 주회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즉 이 문제로 개체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UMC 한인총회 총회장이자 LA한인교회의 담임인 이창민 목사는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는 "전통적 입장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한인교회 입장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감리교회는 전했다.

다만 이 목사는 "그와 동시에 개체교회들의 신앙 전통에 맞는 목회자 파송과 동성결혼 주례 및 장소 제공 여부에 관한 전적인 권한이 개체교회와 담임 목회자에게 있을 뿐 아니라, 목회자나 개체교

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결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인교회 내 일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유보다 크신'(렘 46) 하 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욱 확장된 선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매체를 전했다.

한편 UMC 내에서 동성애 등 성성과 관련된 문제에 이견이 커지자, 동성애에 반대하며 '전통적' 입장을 지지해온 교회들이 대거 교단을 탈퇴했다. 그 수가 7,6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보다 친동성애로 기운 UMC의 분위기가 이번 총회 결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UMC와 한국의 기독교대연합교회(기합)는 서로 교류 관계에 있지만 각 총회의 결정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진영 기자

## 장려금 지급·돌봄 서비스...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 위해 앞장

### 우리나라, OECD 평균 출산율의 절반 주요 교회들의 출산장려정책 소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출산율인 0.72명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OECD 평균 출산율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졌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사역 펼치고 있는가? 주요 교회들의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한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그들

안 누적 지급금이 54억 원에 달한다.

작년에는 첫째의 경우 기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셋째와 넷째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다섯째부터는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부터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쌍둥이는 500만원, 셋쌍둥이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교육프로그램, 여의도순복음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훈 목사는 최근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젊은 세대가 겪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며 "말로만 아이를 낳고 기르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교회가 함께 그 짐을 나눠지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 ◆당진동일교회

당진동일교회(담임 이수훈 목사)는 저출산 극복에 앞장선 모범 교회로 알려져 있다. 교회는 지역 사회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30년 가까이 돌봄 사역에 매진해 교인들의 평균 자녀 수가 2.07명을 기록, 당진 지역 초등학생의 12%가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

교회는 2002년 한 아파트 상가에서 꿈의학교를 개원한 후 초등부를 분리해 2009년 비전스쿨(VCA)을 설립했다. 이후 10년이 넘는 운영을 거쳐 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다음세대 세우기 운동공동체'를 공식 출범했다. 2021년 충남형 온종일(마을방과후) 돌봄 활성화 사업에 신청했으나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미성전되고, 학원연합회로

부터 민원을 받는 등 고충도 있었지만, 당진시청 및 충남도청 관계부처와 꾸준히 대화를 거치며 법적 토대를 마련해, 2023년 4월 당진시청과 '당진형 초등돌봄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비저너리스쿨(Visionary School)로 명칭을 변경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등을 거쳐 지난해 말 당진시에서 실시한 '2024년 민간운영 방과후 돌봄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함으로써 올해 2월 선정됐다.

최근 충남 당진동일교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출산돌봄 실행지도자 모임'에서 당진시 오성환 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충남의 출산율 1위는 당진시라며 당진동일교회의 출산장려운동에 감사의 말을 전했고, 돌봄 시간이 교육청은 오후 4시 30분, 시청은 오후 7시까지인 반면에 당진동일교회는 밤 10시까지라며 진정한 맞춤형 돌봄이라고 밝혔다.

#### ◆고현교회

거제 고현교회(담임 박정근 목사)는 2002년부터 결혼예비학교를 운영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을 진행했다. 출산한 가정을 위해 2022년에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각 지원금을 두 배로 더 늘렸다. 여섯째의 경우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총 지급액은 3천 400만원으로 지난 2014년 300만원에서 10배 가량 늘었다.

박정근 담임목사는 평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장 28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결혼과 출산의 가치를 설교해왔다. 또한 주례 부탁을 받으면 자녀 세 명 이상을 낳을 것을 권고했다. 박 목사는 "아이의 그 자체로 축복"이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자



교회학교 아이들의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녀와 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밖에도 은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의 경우 지난 2015년 가족사역 공동체 내 저출산대책 포럼을 발족하고, 저출산 문제 인식을 갖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보육시설 설치와 결혼예비학교 등을 운영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찾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회 외에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 기관들의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

최근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김요셉 목사, 한사연) 산하 출산장려운동본부(본부장 김춘규 장로, 이하 출산본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결혼자금 2억 무상대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CTS 등 종교계가 중심이 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공동총재 이철·김의상·오정호·장종현·김태영·오정현, 본부장 감경철, 이하 출대본)는 저출생 대책을 위한 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를 설립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용적 정책 제안과 실천적 캠페인, 전 국민적 인식개선을 이뤄갈 예정이다. 장요한 기자

## 기침 총회장 이어 제1부총회장도 직무정지

### 총무 김일업 목사 대행 체제로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장 이종성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무정지된 데 이어 직무대행을 맡았던 제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도 법원에 의해 같은 상황에 놓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홍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 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 상황에서, 현 교단 총무인 김일업 목사가 대행을 맡는다고 한다.

홍 목사는 지난해 정기총회를 앞두고 제1부총회장으로 예비등록을 했으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가 총회장 및 제1부총회장의 자격 조건을 규정한 총회 규약 제6조 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해당 규정은 '목사 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인데, 오랜 기간 군목으로 있었던 홍 목사의 경력을 가입교회 목회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홍 목사는 본등록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홍 목사에 대해 제1부총회장 자격을 부여한 의결이 이뤄졌고, 단독후보였던 홍 목사는 제1부총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선관위 결정을 무효화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교단의 이음 목사가 제기한 총회장 직무정지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 받아들였다. 이에 제1부총회장이었던 홍석훈 목사가 그 직무대행을 맡게 됐던 것인데, 3개월여 만에 그 역시 직무정행이 정지되고 말았다. 김진영 기자

### [인터뷰]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의 '월드사역' >> 3면

### KRIM "난민 사역과 박해받는 교회 등 위해 기도 요청" >> 7면

### 고을일 목사 "믿음이 현실이 되는 예배가 되려면?" >> 22면

www.teddypalace.kr

건설분야의 대표주자 **DL이앤씨(舊 대림산업)**가 시공한

## 하이엔드 라이프 테디팰리스 리조트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면 테디팰리스가 아닙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클래스가 다른 명품 주거 단지!!**

방문고객 **1박 체험 숙박 이벤트** (5.1~5.31)

**마지막 6차분  
8세대 분양개시**

총190세대		
26세대 단독형 (271㎡)	116세대 빌라형 (182㎡)	48세대 빌라형 (207㎡)

주택수 無

중부세 無

보유세 無

1811-0313

방문예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로 34번길 204  
시공사 DL E&C 신탁사 KB부동산신탁

초대형 호재!!  
이곳을 주목하라!

미국 사립 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2026년 제주 상륙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다섯 번째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 (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 설립계획을 공식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략)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은 유치원 과정에 해당하는 PK부터 12학년까지 63학급, 1354명으로 오는 2026년 9월 14일 개교할 예정이다. ... 출처: 제주도민일보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국제학교승인 #테디팰리스



# 최병락 목사 “팬데믹 후 헌신된 성도 남아… 부흥의 기회”

[인터뷰] ‘월드사역’ 펼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

W.O.R.L.D,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다섯 가지 사역 ‘늘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삶의 자세 중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면 ‘예루살렘 부흥’ 재현 교세 쇠퇴, 내외부 원인 복합… 진리 계속 전해야 성도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귀하게 여기길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담임목사(51)는 이 교회 제2대 담임이던 피영민 목사(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에 이어 지난 2018년 12월 부임했다. 25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최 목사는 신학 공부를 마친 뒤 텍사스주 달라스에 세미한교회를 개척했다. 그가 담임으로 있던 약 16년의 기간 동안 세미한교회는 미주의 대표적인 한인교회로 성장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대형교회 중 한 곳의 담임이 된 최병락 목사. 그는 부임 후 지난 약 5년간의 시간 동안 목회방향을 정립하며 교회를 이끌고 있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월드(W.O.R.L.D)사역이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를 마친 최 목사에 목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월드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미주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다 강남중앙침례교회 3대 담임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달라진 목회 환경에 적응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환경의 다름보다 목회라는 공통분모가 더 많았기에 생각보다 더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달라스의 이민자들의 직업과 환경이 한국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대부분 제가 경험했던 직업들과 이민자로서 힘든 고민의 내용들이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설교의 적용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은 직업과 환경이 다양해서 성도들의 삶에 외닿는, 공감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 그러나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본인의 삶에 직접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월드사역’을 강조하시는데, 이 사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2년 세미한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다섯 가지 사역입니다. Worshiping church(예배하는 교회), Oikos church(소그룹 목장교회), Reaching out church(나누고 돕는 교회), Life giving church(생명을 살리는 교회), Discipling church(제자삼는 교회)의 첫 글자를 따서 ‘월드사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해마다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해 5년 동안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며, 5년이 지나면 다시 예배부터 시작해 다섯 가지를 더욱 더 견고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했던 다섯 가지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전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거운 예배를 드렸고, 또 가정에서 뜨겁게 기도했으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하루에 믿는 사람의 수가 3천 명씩 더해지는 전도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한 선교사역, 그리고 구경꾼이 아닌 일꾼을 세움으로 예루

살렘에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제자 양육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건강한 샘플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DNA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처음 부임을 하고 첫째 표어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3가지 실천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가 되자’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준비된 예배자의 만남이며 사건입니다. 많은 예배자들은 예배 중 예배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예배는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예배당의 예배가 마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예배를 위해 마음의 준비, 영성관리, 죄를 멀리하는 경건의 연습, 그리고 옷과 헌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할 때 주일 예배는 더욱 은혜로워집니다. 그렇게 준비한 예배의 마음으로 주일예배에 나와 있으면 그 준비한 마음 때문에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팬데믹 이후 목회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고, 목사님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팬데믹 이후 대부분 교회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성도의 숫자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줄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둘을 조합해보면 헌신된 성도들이 남았다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담임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뜻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교회가 헌신자들이 잘 훈련시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내보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인, 예배, 소그룹, 구제, 선교, 훈련을 회복해 교회가 더욱 강한 교회가 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들은 코로나도 이겨낸 믿음입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더욱 힘을 내어 박자를 가하고, 이런 귀한 성도들을 잘 준비시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나 위기가 있었습니. 그 위기는 예상치 못한 부흥의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 구제의 문제로 돌로 갈라질 위기가 찾아왔지만, 일곱 집사라는 훌륭한 일꾼을 세우는 그들의 헌신과 지혜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는 도사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인식하지 않고 기회로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의 교회에도 예루살렘의 부흥의 현상이 재현되리라 봅니다.”

한국 기독교 교세가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잘 훈련시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내보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인, 예배, 소그룹, 구제, 선교, 훈련을 회복해 교회가 더욱 강한 교회가 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들은 코로나도 이겨낸 믿음입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더욱 힘을 내어 박자를 가하고, 이런 귀한 성도들을 잘 준비시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적대적 감정을 느끼게 된 듯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몸부림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해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섬긴다면 충분히 바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갑급함이 사라지고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런 현상이 찾아오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서 진리의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시대상황에서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거나 하나의 진리를 강조하는 기독교는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내외적인 요소가 기독교의 정체와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합

니다. 물론 이 외에도 그 원인들은 많겠지만, 결국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될 때, 진짜 진리라면 반드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 가운데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꼭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땅에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교회를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자기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남들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너진 교회의 영광을 성도들이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교화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리사욕으로 이용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섬기며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최병락 목사는 침례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B.A.)한 최병락 목사는 사우스웨스턴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취득했고 달라스신학교 석사연구과정(MABS)을 수학했다. 사우스웨스턴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달라스침례대학교(Dallas Baptist University) 명예박사이기도 하다. 미국 달라스에서 세미한교회를 개척한 후 목회하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제3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월드사역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김진영 기자

## 김진홍 목사 “보수 조직화 해야… ‘한국보수연합’ 창설할 것”

최근 ‘아침묵상’에서 밝혀

김진홍 목사(사진)가 최근 ‘아침묵상’ 글에서 “가칭 ‘한국보수연합’이란 시민정치운동기구 창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 글에서 “지난 4월 10일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많이 졌다. 그런 중에도 개헌 숫자인 200석은 내어 주지 않

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겨레의 장래를 염려하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실력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에 누구누구를 원망하거나 규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



여서는 안 된다. 한국 보수 세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3가지”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첫째는 낙심하고 흩어진 세력을 한 곳으로 모아 조직화하는 일이다. 둘째는 일꾼들을 기르는 일이다. 특히 보수적 가치관을 지닌 청년 대학생들을 길러내는 일이다. 셋째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한국의 보수 세력이 자긍심을 되

찾고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전략 전술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중 첫 번째에 대해 “한국 보수 세력의 치명적인 약점이 조직화하는 역량이 부족한 점”이라며 “보수 세력 안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구심점을 이루어 조직화되어 세력을 떨치지 못한 채

제각기 흩어져 있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세력의 조직화에는 4(가지)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며 “첫째는 228개 행정 단위 지역에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각 지역마다 정당 조직이 아닌 애국 세력을 모아 시민운동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시민운동 조직이 정당 정치가 아니라 시민정치운동이어야 한다. 전국 228개 행정 단위마다 보수 애국 세력을 발굴해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는 20대로부터 80대에 이르

기까지 세대별 시민애국운동에 헌신하는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세대별 조직의 최상부에는 한국보수원로회의 같은 상설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셋째는 직능별 조직의 구축이다. 예를 들어 한국보수교수연합, 보수청년연합, 대학생연합, 의사연합, 노동자연합 등”이라며 “넷째는 기존 정당들과의 연대 교류다. 국민의힘이나 통일애국당 같은 조직들을 존중하고 대화의 통로를 열어 두어 관계를 긴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제6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입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공급호수 ○ 304호(재공급 304호, 예비입주자 포함)

공급주택 ○ 서울리츠1호: 이룸채 (1개 단지)  
○ 서울리츠2호: 품의숲코오롱하늘채 등 8개 단지

전용면적 23㎡~39㎡

임대조건 ○ 보증금: 39,100천원 ~ 162,000천원  
○ 월임대료: 160,000원 ~ 662,000원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은 무주택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자산, 자동차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li> <li>-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 100%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li> <li>- 맞벌이 신혼부부 : 120%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30%)</li> </ul>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 27,300만원 이하</li> <li>• 신혼부부, 고령자 : 34,500만원 이하</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 3,708만원 이하</li> </ul>

※ 계층별 세부 자격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접수 또는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인터넷 청약접수 : 2024. 5. 8.(수) 10:00 ~ 5. 10.(금) 17:00  
○ 방문 청약접수 : 2024. 5. 10.(금) 10:00 ~ 17:00

주요일정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5. 20.(월) ○ 서류제출 기간 : 2024. 5. 29.(수) ~ 5. 31.(금)  
○ 최종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4. 8. 30.(금) ○ 계약기간 : 2024. 9. 23.(월) ~ 9. 25.(수)  
○ 입주예정일 : 2024년 11월 이후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1차

# 서울리츠 행복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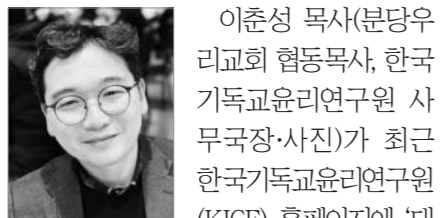
#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복음적인 교회, 고립된 공동체 아닌 열린 환대 공동체로 거듭나야”

이춘성 목사, 최근 한기운 홈페이지에 글 게재



이춘성 목사(분당우리교회 협동목사,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사무국장·사진)가 최근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자살과 출산 그리고 복음’이라는 주제의 글을 게재했다.

이목사는 “지난 4월 22일,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을 짚었다”며 “특히 저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한국은 과도한 경쟁을 통해 엘리트를 육성하며 고도의 성장을 이겨왔지만, 이런 경쟁은 오히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낳고, 결혼하지 않는 비혼율과 결혼 가정의 출산 기피 현상을 유발하며 초저출산의 늪에 빠트렸

다. 결국 높은 자살률, 초저출산율, 노동 인구의 급감이 경제적 저성장을 초래한다고 기사는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간국대 이관후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높은 자살률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2021년 대한신경과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관후 교수는 이러한 한국의 높은 자살률이 전 세계적인 추세나 인류학적 흐름과는 다르게 한국 특유의 문화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그는 1997년부터 1998년의 외환위기, 2001년부터 2003년의 카드 대란, 2008년부터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원인이 한국 자살률 증가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10~30대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2017~2021년 사이에 20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6.4명에서 23.5명으로, 30대는 24.5명에서 27.3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세대에서 사망자 10명 중 4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이관후 교수는 젊은 세대의 높은 자살률 원인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과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 체제에서 찾았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경쟁에서 뒤처질 때 과도한 자기 비하와 우울감으로 이어져 자살로 치닫한다는 것’이라며 “또한, 이들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기를 원치 않는 이타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살을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죄로 여겨왔다. 하지만 신자의 자살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속하는 구원을 취소할 정도의 죄인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자살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과 인간이 만든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비극과 고통을 멈추고 생명의 소망을 세상에 주시기를 위한 복된 소식”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는 높은 자살률과 증가하는 젊은 세대의 자살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자살은 이 죄악된 세상의 고통의 최정점에 있는 죄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C.S.루이스는 소설 <천국과 지옥>

의 이혼)에서 ‘고립’을 지옥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그렸다”며 “지옥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멀어지고 철저히 고립된 공간이라는 것이다. 루이스가 묘사한 지옥의 모습을 2024년의 한국에 적용해 보면, 한국은 단지 통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초저출산율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최고의 고립감을 느끼는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롬5:20). 이 말씀은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자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지옥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에게 예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외치는 듯하다”며 “바울은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한다. ‘이 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

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살만한 영생의 세계가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음적인 교회는 스스로 고립된 공동체가 아닌 열린 환대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이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사회가 만들었던 그들을 고립시킨 모든 벽을 허물고, 그들이 고립된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는 세상 은 조금이라도 살 만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한다”며 “더 나아가 복을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면 영원히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 “간절히 찾고 두드리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정바울 선교사, ‘성(性), 생명, 가정, 다음세대를 위한 철학’ 설교

정바울 선교사(T국)가 최근 에스더기(性), 생명, 가정, 다음세대를 위한 철학)에 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주최하는 ‘성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선교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아무나 믿을 수 없다. 무슬림, 불교 신자 등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 믿음은 위로부터 들려지는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총만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보이는 표적이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라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멀어져서 회심하게 되었다.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다. 우리도 안제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내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성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열성인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영광은 실제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전에 자기 열성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이방 선교사로 바뀌게 되었다. 본문을 보면 ‘눈을 들어 발을 보라’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다르다. 주님은 이 땅을 보시면서 돌아올 영혼들을 바라보신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들을 본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제일 먼저 바뀌게 된 것은 그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선교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다 같이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120명뿐만 아니라 불 받은 그 사람들

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하나님 나라 전파가 되도록 성령의 불이 계속 해서 부어지고 또 부어졌다. 그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소아시아, 로마, 그리스 등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이들은 임의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으며 가는 곳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입을 크게 열어서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되어야 한다. 천국은 어린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의 것이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저해 있는 자는 공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창의적인 선교 전략은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이 창의적이지 않더라도 성령의 생각은 창의적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주님은 역사하시며 세워진 한 영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영혼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하며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야 한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불이 되어야 하며 말씀의 불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떨어진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불이 떨어진다. 주님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내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약속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선교사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순종할 때 이런 증거가 나타나며 말씀을 전할 때 증거가 나타난다. 그런데 먼저는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정바울 선교사(T국)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회심하도록 인도하신다. 믿음 없이 행한 행위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늘 믿음을 세워서 행동해야 한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그냥 보는 것과 기도하고서 말씀을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었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을 모일 때마다 총만해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은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야 한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 그런데 말씀이 무너져있으면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항상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다”며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늘의 신성한 축복들이 부어지고 은사가 주어지기도 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가신다.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총만해지시길 축복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층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검색 | 전국 대리점 및 유통망 매장  
| \*사용 7일 후, 10.6% 볼 탄력,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층 개선

## 텍스트프리칭연구소, 설교학 세미나 연다

오는 5월 6일 광명중앙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설교문화를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인 김대혁박현신 두 교수가 이끄는 ‘텍스트프리칭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연구소 측은 “기존 설교세미나 및 설교연구회가 ‘부흥과 설교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본 연구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일하는 설교가 되도록 교육과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신대학교의 신학대학원과 대학원 설교학과에서 이끌어낸 강의를 기반으로

로, 현대 사회의 이슈를 고려한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 설교 이론과 작성에 대한 집중교육 스쿨링도 방학 때마다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자립교회나 신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광명 소재 광명중앙교회(서보민 목사,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29)에서 ‘챗GPT와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전엔 챗GPT와 관련

된 기술의 발전에 대해 설교학자들이 명쾌한 진단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며, 오후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목회자·설교자·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 현장접수 및 온라인 신청은 <http://forms.gle/byykPtkSDzSu8zFA70>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2373-7551(강원규 목사)로 하면 된다. 장요한 기자



# 부기총,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예배 드려

4월 30일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안실 목사, 이하 부기총)가 4월 30일 부산광역시 동래중앙교회(담임 정성훈 목사)에서 '2024년 부산시 조찬기도회 및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예배'를 드렸다.

박상철 목사(부기총 상임회장)가 사회를 본 1부 예배에선 먼저 강안실 목사(부기총 대표회장)가 환영사를 전했다. 강 대표회장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님들을 축하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그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 길을 행통하게 인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어려운 위기 때마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찬송과 한국환 목사(수영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의 대표기도, 극동방송 전속 여성합창단의 찬양, 김옥주 장로(전전도연합회 회장)의 성경봉독 후 임영문 목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진정한 함(사면 18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 목사는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죄에



임영문 목사

임석용 목사

서 자유 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인간에게 있는, 치명적인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한다"고 했다.

그는 "사면 18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2대왕 다윗이 노래한 시이다. 다윗 왕은 그의 생애 안 해본 것이 없는 자다.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본 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을 때,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 18편 1절"이라고 했다.

임 목사는 "다윗은 절대 군주시대의 왕이었고, 장군이였다. 인간으로서 그가 가져 볼 것은 다 가져보았고, 누릴 것은 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기총

누려 보았다"며 "그런데 한 평생 다 살고 난 다음, 다윗왕이 한 고백은 삶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자신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길 축복한다"고 전했다.

임 목사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 주어진다. 유한한 생명이 귀중한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값은 무엇으로도 환산이 안 된다"며 "함입 들고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시길 바란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길"이라고 전했다.

### ◆"차별금지법 막아달라"

이후 류진민 목사(부기총 사무총장)의 광고와 이상구 목사(부기총 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 정영진 목사(부기총 수석상임회장)의 사회로 2부 기도회를 진행했다. 애국가 제창 후 김영관 부기총 상임이사가 내빈들을 소개했고, 축사가 있었다.

박중목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앞으로 부산의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부기총의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고 했다.

이어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국회의원 당선자들께서 자유의 신념이 투영된 우리 헌법의 가치를 잘 이끌어 내고 그것을 성실시 수행하시리라 믿는다"며 "저출생 시대다. 학생들이 없으면 아무



부산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부기총

것도 이뤄낼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정성훈 목사(부기총 증경회장)는 "국회의원 배지은 온 국민이 축하할 일을 해달라는 바람이 담겨 있다"며 "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 있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온 국민이 축하할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임석용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는 "대한민국에 4대 악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성애, 마약, 저출산, 북핵 위협이 그것"이라며 "지혜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사명은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래를 축복된 것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선택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념보다 강한 게 신념이고, 신념보다 강한 게 신앙이다. 신앙에 바탕

을 둔 신념과 이념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본다"며 "당선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믿음을 갖고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임 목사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차별금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특권법이라고 본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기독교 사학이 성경과 기독교 가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며 "잘못 개정된 사학법을 바로잡아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후 합심기도가 진행돼 △김택신 목사(영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나라와 부산의 화합과 발전" △정태영 목사(해운대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한국교회 회복과 복음화" △김이성 목사(부기총 상임회장)가 "부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김진영 기자

## 국가조찬기도회, 어버이날 앞두고 독거어르신들께 선물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회장 이봉관 장로)가 5월 1일 서울 마포구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어버이날 밤사랑잔치와 선물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섬기는 소셜서비스 전문기관(사)월드뷰티앤즈(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K-뷰티학과장)와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 고독사와 돌봄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도 참여했다.

해돋는마을 이사장 장현일 목사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위기와 고독사 위험 속에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께, 사랑

의 밥퍼와 특별한 건강선물을 드려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정재원 장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의 식사와 효도선물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월드뷰티앤즈 회장 최에스터 교수는 "이번 사랑의 밥퍼와 효도선물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어르신들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사)국가조찬기도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5월 1일 서울 마포구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어버이날 밤사랑잔치와 선물전달식'을 가졌다. ©해돋는마을

이번 전달식에는 박형근 찬양선교사의 찬양과 엘드림노인대학 합창단의 특송도 있었다. 이날 밤사랑잔치에선 대흥동종교협의회, 장민혁 상임대표(월드뷰티앤즈), 구훈 단장(자원봉사단), 최세연 사무국장(해돋는마을), 최세진 영양사 및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섬겼다. 김진영 기자

## 선교단체 라이트이너스, '더 라스트 처치' 설립

기독교 선교회인 '라이트이너스'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마천로에 '더 라스트 처치'를 설립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인 유은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사랑의교회 김태영 목사의 기도 및 역곡초대교회 윤석명 목사의 설교, 지미선 찬양사역자의 찬양으로 드러졌으며, 2부 순서로 김수배 목사, 김상준 목사가 축사를, 튀르키예 김요한 선교사, 몽골영성사관학교장 최숙정 목사가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라이트이너스의 정재유·박재영 선교사의 감사 인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라이트이너스 정재유 대표는 "혼탁한



라이트이너스가 '더 라스트 처치'를 설립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라이트이너스

이 시대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교회, 민족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교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초대교회의 영적 야성을 회복하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박재영 선교사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가 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7시간 치유기도회를 더 활성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길 기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도록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라이트이너스는 매주 화·목·토요일 7시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 23-25일 경기도 평택의 광은기독교원에서 캐나다 토론토 순복음영성교회 김석재 목사를 초청해 치유와 회복을 위한 부흥성회를 계획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 '창립 100주년' 거제 장승포교회, 주민센터에 간식 세트 기탁

경남 거제시 장승포교회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장승포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매년 계속 해오던 일이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장승포교회는 지난 1일, 사회복지 법인 애광원에서 구매한 유자만주·카스텔라·쿠키 등 80세트를 장승포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이 선물은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1.4후퇴 흥남부두 귀화자 및 장승포동 관내 노인정 9곳과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월 호국보훈 및 가정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

신한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승포교회 윤재환 목사는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과 연로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 이었고 오늘이 풍요로움이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이분들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승포교회는 지난해부터 장승포동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주민을 위해 월 2회 반찬 및 쌀을 지원하는 등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고, 특히 지역사회 고령자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지역사회의 미담과 귀감이 되고 있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 장승포교회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사회복지 법인 애광원에서 구매한 유자만주·카스텔라·쿠키 등 80세트를 장승포동 주민센터에 기탁했고, 선물 세트는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1.4후퇴 흥남부두 귀화자 및 장승포동 관내 노인정 9곳과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장승포교회

KB 금융그룹 | 국민의 편에서 금융 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사인심의회 제240402-01381-ADP (2024.4.2-2025.4.1)

KB 국민카드

# 텍사스 한인 침례교회 목회자 포럼 성황리에 마쳐

### 교회 내 갈등의 목회적·행정적 대응방안 심도 있는 논의 이뤄져

텍사스 남침례회 한인교회 주총회 (회장 허중수 목사)가 주최하고 남부지방회가 주관한 2024년 목회자 포럼이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휴스턴 새누리교회 (공인 목사 사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교회 내 갈등에 대한 목회적·행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약 30여 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의 첫째 날, 허중수 목사(주총회장, 한마음 교회 담임)는 교회 갈등의 원인과 구조에 대해서 이론과 실무적인 내용으로 발제했으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그룹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나누기도 했다. 허목사의 발제와 관련된 그룹 토론에서의 나눔은 실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는 목회적 접근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허중수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교회내 갈등과 실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내용으로 이끌었다.



포럼은 참석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다양한 목회적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서로 용기와 격려를 주고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주최측은 평가했다. ©교회 측 제공

둘째 날에는 신영호 목사(라이프 교회)가 교회 행정에 필요한 실무적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였다. 신 목사는 행정적 측면에서 교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관리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 발표는 교회의 행정적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감과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포럼을 통해 목회자들이 흔히 겪고 있는 다양한 목회적 갈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고민하는 데 많은 영감을 주고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포럼을 위해 준비위원장으로 섬

이창한 기자

# 美건물 찢은 토네이도서 생존한 남성 “기도만이 방법”



2024년 4월 26일에 발생한 토네이도도 인하여 미국 네브래스카 린컨에 있는 가너 인더스트리의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네브래스카 퍼블릭 미디어 뉴스 캡처



토네이도 생존자인 네이트 허친슨 ©KLKN-TV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한 공장에 있던 직원이 토네이도도 강타하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한 후 기적적으로 살아 남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6일 네브래스카주 링컨의 가너 인더스트리(Garner Industries) 산업용 건물에는 70명의 직원이 있었고, 네이트 허친슨은 그중 한 명이었다.

토네이도도 건물 지붕을 찢고 잔해가 떨어지는 동안, 허친슨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결과적으로 그와 동료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허친슨은 지역 방송국 KLKN-TV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라며 "그저 갈라지 않길 바랐다"고 했다.

다행히도 허친슨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동료 중 3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장 직원인 듀에인 존스는 KETV에 "직원들이 퇴근하기 직전이었다고, 토네이

도가 회사를 직접적으로 강타해 지금은 모든 것이 혼돈 속에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켄트 톰슨은 자신이 차를 운전하던 중 건물이 태풍에 의해 파괴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운전하다가 그 건물이 토네이도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토네이도도 차를 들어 올려 반대편으로 이동시켰지만, 차는 뒤집히지 않고 그냥 반대편으로 미끄러졌다"라고 했다.

폭스 54 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관을 포함한 응급 대응들이 붕괴된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웨이버리 소방관 서장인 장 자레드 레인스는 직원들이 건물 내 안전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많은 직원들은 긴급 대피소로 옮겨졌지만, 그들은 거기서 자신들이 어떻게 잔해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티브 판하우저는 "그것은 마치 초현실적인 경험이었다. 모두가 조용해지고 침착해지면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빼내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아우는 "토네이도도 얼마나 잠시 사이에 삶을 혼란 속에 빠뜨렸는지를 상기했다. 마치 화물열차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며 "약 5초 후에 모든 것이 끝나고, 전부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허친슨은 비록 차 앞 유리가 파손되었지만, 직접 운전하여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살아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인터뷰를 위해 토네이도도 당시 입었던 티셔츠를 입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친슨은 "이 옷은 루퍼스 듀 솔(Rufus Du Sol)이라는 밴드인데, 그들의 곡 중 '마침내 나는 살았다(At Least I'm Alive)'가 있다. 정말 환상적이다"며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내 생명을 구해 주시길 기도했고, 나는 지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채 여기에 있다"고 고백했다.

유진 김 기자

# “직분자의 힘든 길, 주님 의지해 인도하심을 받길”

###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8주년, 18명의 직분자 세위

새생명오아시스교회(김일형 목사)가 창립 18주년 기념 임직 및 교육관 헌당예배를 4월 28일 오후 3시에 드렸다.

'가자 vs 가지!' (마태복음 28:19-20)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오석환 목사(캄보디아 선교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그리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캄보디아에 갔던, 어디에든지 갈 수 있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에게 가자고 하신다. 장로의 길, 권사의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힘들겠나.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교회가 기동으로 세워진 임직자들이 지켰기 때문에 18년 동안 울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여러분이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사역해



새생명오아시스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임직 및 교육관 헌당예배 현장의 모습. ©새생명오아시스교회

오고 있다. 저는 선교지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길이 막힐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답사에서 김 폴 장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직분을 겸손히 감당하기를 원한다. 낮은 자리에서 교회와 주님의 일에 솔선수범하며 나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말씀 앞에 산산히 깨어지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충성으로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가

기를 결단한다"고 했다.

이날 18주년 기념예배에서는 뜻하지 않게 18명의 사무장로, 장로, 권사,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가 임직을 받아 은혜를 더했다고 김일형 목사는 밝혔다.

예배에서 사회에 김일형 목사, 특송에 2세 사역부, 광고에 서영완 장로, 축도에 배진 목사(청년부 담당)가 각각 담당했다. 새생명오아시스교회는 2006년에 새생명선교교회와 오아시스한인교회가 연합함으로 시작했다.

토마스 맹 기자

# 센터메디컬그룹오픈 시니어 골프 대회 성대하게 마무리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골프대회가 최근 워터 소재 캘리포니아컨트리클럽(CCC)에서 열렸다. 골프대회 당일에는 13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 활기가 찼다. 이날 신성한 시니어들은 100세를 기약하는 화준 샷을 파란 하늘로 쏘아 올렸다.



센터메디컬그룹오픈 시니어 골프 대회를 마치고. ©주최 측 제공

날씨까지 덥지 않고 적당한 바람이 불어와 시니어들이 골프를 치는 데 완벽한 조건이었다. 이날 골프대회 참여한 많은 시니어들은 좋은 골프 코스와, 센터메디컬그룹 스태프들의 친절한 안내와 준비

성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골프대회가 끝나고 열린 뱅켓에서는 스테이크가 대접되었고,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상식과 라플 시간을 가졌다. 아쉽게도 행운의 \$10,000이 걸린 출원원

은 나오지 않았지만, 남여 메달리스트, 장타상, 니어상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하였고, 푸짐한 상품을 나누어주는 라플행사가 약 2시간 이상 진행되어 참여한 사람들이 매우 즐거워했다.

이날 상품은 센터메디컬그룹측에서 준비하여 아시아나 LA-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 \$1,200 상당의 피부 미용 기프트 카드, 다양한 골프 상품권과 용품들, 고급 녹음과 흡삼, \$2,500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선물을 선보였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 사장님 지원 플랫폼

#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http://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번호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정보 안내) 노란우산은 예금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해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까지다 내부통제를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국 기후 변화 대응과 난민 사역, 박해받는 교회 등 위해 기도 요청”

##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선교 기도 제목

◇유럽과 미국에서 이란 출신 목회자들의 수고와 헌신

2015년 이란 출신 복음주의 리더들이 모여 시작한 이란지도자포럼(ILF)은 2023년 10월 런던에서 130명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복음주의동맹(Evangelical Alliance)으로 성장했다. 최근 기독교 잡지 크리스챤티투데이(CT)는 이란의 디아스포라 사역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이프하우스 미니스트리(SafeHouse Ministries)의 설립자인 골바기(Darius Gholbaghi) 목사는 이란 북서쪽 카라지(Karaj) 출신이다. 그와 그의 아내는 2001년 유럽으로 떠났고 네덜란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세이프하우스는 이란 국내외의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멘토링과 상담을 통해 절망에서 벗어나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코푸(Korpu) 번역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모흐프(Feridoon Mokhof) 목사는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르다빌(Ardabil) 출신이다. 대학생 시절 기독교로 개종한 그는 1982년부터 하나님의교회 소속 목사로 활동했고, 무슬림 전도를 이유로 체포되기도 했으며, 이후 영국으로 탈출했다. 그는 모국어인 아제리어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이란 내 소수 민족 12개의 언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사니베일(Sunnyvale)에 있는 이란기독교교회(IC)의 담임인 나바이(Kamil Navai) 목사는 테헤란(Tehran)에서 태어났고 23세에 이란을 떠났다. 미국에서 살던 그는 1987년 우연히 전도를 받고 개종했고, 이후 신학을 공부하고 이란인 교회를 개척했다. 현재 이 교회에는 20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다. 이란 밖 디아스포라 사역들이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이를 계기로 이란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기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대기오염 심각한 100곳 중 99곳 아시아에 있어

3월에 발표한 IQAir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대기질은 인체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의 연간 기준치(PM2.5)보다 15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키스탄과 인도도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대기질을 보였

고, 타지키스탄, 부르키나파소,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네팔, 이집트, 민주공화국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었다. 올해 연구는 전 세계 134개 국가, 7,812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대기오염이 심각한 100곳 중 99곳이 아시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염이 심한 곳은 기준치를 23배나 초과한 인도 북부의 도시 베푼사라이(Begusarai)였다. 이 도시와 함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와 중국 동북부 지역의 도시들이 가장 심각한 대기질을 나타냈고, 인도네시아(망그라), 베트남(하노이), 태국(차양라이)의 일부 도시들도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했다.

IQAir의 글로벌 CEO인 하메스(Frank Hammes)는 이번 보고서를 참고로 각 나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고, 그린피스(Greenpeace)의 대기질 과학자 페로우(Aidan Farrow) 박사는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전 세계가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에 대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특별히 아시아 국가들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염원 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iqair.com, www.southasiatime.com)

◇스리랑카, 성경적 입장에서 운명론에 대한 이해 필요

스리랑카에서 운명론적 사고는 전통 신앙과 종교, 역사적 경험이 혼재되어 형성됐다. 불교와 힌두교는 카르마(karma)의 렌즈로 삶을 해석하게 하면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 결과 스리랑카에서 8% 남짓한 기독교인들은 개종한 이후에도 운명이나 신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등 잘못된 구원론에 빠질 우려가 있다. 랑카성서신학교(Lanka Bible Seminary)의 세나나야케(A. N. Senanayake) 총장은 신학 교육을 통해 목회자들의 비관적 사고를 장려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학적인 토론을 마련해서 기독교인들이 운명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랑카신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신의 개입에 대한 미묘한 관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욕기를 통해 인과응보의 차원을



이란 출신 골바기 목사가 설립한 세이프하우스 미니스트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곳은 이란 국내의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멘토링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세이프하우스 미니스트리 홈페이지

넘어서는 고통의 심오한 의미를 찾게 하고, 팔복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고, 잠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에 참여하게 할 것을 당부한다. 그뿐 아니라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좁히도록 하는 교육과 토론도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스리랑카 교회와 지도자들이 성경적 입장에서 운명론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되고,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이 운명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참 자유를 누리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미얀마, 징집법 시행으로 미얀마인 탈출 가능성 커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3년이 흐른 미얀마에 급가야 징집법까지 내려졌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는 18-35세의 남성과 18-27세 여성을 대상으로 매년 6만 명을 징집하겠다고 밝혔고, 4월에 1차로 5천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워싱턴에 있는 윌슨센터(Wilson Center)의 묘 헤인(Ye Myo Hein) 연구원은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면서 자원 입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군부는 강제적인 징집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분석한다. 또한 최근 군부와 소수 민족 무장단체 간의 전투가 격화되었고, 여러 곳에서 군부의 세력이 밀려나면서 이러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정부(NUG)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에 수백 개의 군부 기지를 탈환해 미얀마 영토의 60%가 이제 저항군의 통제하에 있다고 한다. 문제는 군부의 강제 징집법 시행으로 단기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태국을 비롯한 국외로 탈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태국의 매솿(Mae Sot) 마을에서 15년 동안 미얀마

난민을 돌보는 카리스프로젝트(Charis Project)의 대표인 블루(Aaron Blue) 선교사는 징집법이 최대 1,700만 명의 미얀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부와 무장단체 간의 전투가 격화되지 않고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어 강제 징집법이 하루속히 철폐되고, 징집법 시행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미얀마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dw.com, www.christianitytoday.com)

◇우간다, 160만 명의 난민에 대한 긴급구조 자금 부족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우간다에는 현재 16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살고 있다. 우간다 정부가 난민에 대해 개방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주공화국과 남수단으로부터 많은 수의 난민들이 유입되었고, 지난 2년 동안에도 22만 명의 난민이 새로 유입됐다. 하지만 우간다에 대한 전 세계의 인도주의적 자금 지원이 수년에 걸쳐 감소하면서 여러 난민캠프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EU 휴머니테리언 에드(Humanitarian Aid)의 책임자인 로티발(Bruno Rotival)은 2018년에 난민 1인당 연간 약 170달러가 지출되었지만 현재는 85달러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우간다 남서부에 위치한 나키발레(Nakivale) 캠프에는 18만 5천 명이 살고 있는데, 빈곤 상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학교를 중퇴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나키발레 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오켈로(Justin Okello) 박사는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은 40%에 달하고, 급성 영양실조도 최대 15%에 가까워지고 있어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르웨이난민위원회(NRC)의 우간다 코디



우간다 난민 정착촌에서 식량 배급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우간다에는 현재 16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살고 있고, 지난 2년 동안에도 22만 명의 난민이 새로 유입됐다. ©USAID

네이터인 아가바(Claire Birungi Agaba)는 우간다 정부가 즉각적인 난민 지위 부여와 정착지까지 제공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우간다에 유입된 난민들의 빈곤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지원이 적실하게 이뤄지고, 우간다 교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africanews.com)

◇남아공, 콧트 정교회 수도사 3명 칼에 찔려 숨져

3월 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원에서 콧트 정교회 소속 이집트 수도사 3명이 칼에 찔려 숨졌다. 경찰 당국은 프리토리아(Pretoria) 동쪽 컬리닌(Cullinan) 지역에 위치한 성 마르코(The Saint Mark) 수도원과 성 사무엘(The Saint Samuel) 수도원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구타당한 뒤 탈출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수도사 1명도 함께 발견했다고 밝혔다. 콧트 정교회는 남아공에서 안타깝게 숨진 수도사들의 이름이 각각 엘 사무엘리(Hegumen Takla el-Samuely), 요스토스 마르코스(Yostos ava Markos), 미나 마르코스(Mina ava Markos)라고 밝혔다. 남아공에서 교회와 수도원에 대한 공격이나 테러는 드물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정교회에서 가자지구 사태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집트와 몇몇 나라에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콧트 정교회의 타와드로스 2세(Tawadros II) 교황은 성명을 통해 이들을 순교자로 지정했고, 이들의 가족들이 위로받고, 남아공의 교회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집트 외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남아공 당국에 요청했다. 이집트와 남아공의 콧트 정교회들이 수도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며, 더 이상 종교 간 테러와 공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aljazeera.com)

◇짐바브웨, 이단 종교 집단에 머물던 아동 251명 구출해

3월 13일, 짐바브웨 경찰은 수도 하라레(Harare)에서 북서쪽으로 약 34km 떨어진 농장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를 체포했고, 251명의 아이들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대변인은 사도교회(Apostolic Church) 계열에 속한 초쿠롱게르와(Ishmael Chokurongwa)가 이곳을 성지처럼 만들어 1천 명 이상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놀라운 것은 이 단체의 종교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불법화되었던 아이들 251명 가운데 246명이 출생증명서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경찰은 농장 주변에서 등록되지 않은 무덤 16개도 발견했다.

경찰은 자신을 선지자 이스마엘이라고 칭한 초쿠롱게르와를 비롯하여 7명의 관리자들을 미성년자 학대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 중이다. 체포 당시 이곳에 머물고 있던 여성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쓴 상태였고, 약속된 땅에 있는 자신들을 경찰에서 어떤 이유로 탄압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곳에 갇힌 아이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설교에 속아 정교 교육을 금지당했고, 신도들은 신령한 기도와 기름 부음 받은 돌에 대한 믿음을 강요받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짐바브웨 교회들이 잘못된 신앙관과 이단 사상에 대처하기 위한 신학 교육과 목회 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성경적 기반 위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religionnews.com)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심이 기준입니다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지켜요!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C (어패류 85°C) 1분 이상 익히기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먹기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식품 5°C 이하  
냉동식품 -18°C 이하

# 영국회의원들,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기독교인들 반대 시위

영국 국회의원들이 조력자살 법안을 개정하자는 제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의회 밖에서 시위에 동참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데이비드 에스터 란첸이 지지한 청원인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얻은 후 국회의원 토론회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렸다.

청원은 "영국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기 위해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의회 밖에서 시위에 동참한 기독교법률

센터(CLO)는 "법 개정을 지지하는 이 캠페인은 동조적이고 위험하며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CLC 최고경영자(CEO)는 "이것이 이 나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조력자살은 동정심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앗아가는 것이다. 그 선을 넘으면 온갖 학대에 문이 열린다"고 했다.

이어 "최근 몇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는 매우 일방적이었다. 이제는 생명의 이야기와 희망이 들려오고 법 개

정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파국은 현실이다. 최근 안락사를 자유화한 국가의 통계와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시위에 참여하는 다른 단체들은 케어 나트 킬링, 나트 데드 옛, 티스턴트 보이스가 있다.

케어 나트 킬링 CEO인 골든 맥도널드 박사는 "오늘의 토론은 영국의 불안정한 완화 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놓쳤다"라며 "법을 개정하면 노인, 취약자,

장애인, 조기에 생을 마감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락사 제도가 있는 캐나다에서는 2022년 사망자 중 1천7백명이 의로움을 이유로 꼽았다. 우리는 또한 패럴림픽 선수, 퇴역 군인, 장애인들이 살아 가는데 필요한 지원보다 오히려 조력 사망을 제안받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를 보았다"라고 했다.

그는 "할리우드 죽음이라는 신화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약물을 섭취한 사람들은 빠르고 고통 없이 죽는다는 의사가 폐부종이라고



©Unsplash

부르는 증상으로 서서히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안락사와 조력자살 합법화를 보여주는 미국과 유럽의 우려스러운 데이터를 얻기 전의 일이며, 자살 건수

를 줄이는 것은 커녕 일반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오늘 시위에 참여한 니키 켄워드(Nikki Kenward)는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é Syndrome)에 걸려 한쪽 눈을 깜박이는 능력을 제외한 모든 움직임을 잃었다. 그는 "당시에 조력자살이 있었다면 선택하기 쉬웠을 텐데 지금은 아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자살이 답이 아니라고 믿는다. 답은 아주 훌륭하고 완화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매경 기자

## 美목회자 “반유대주의는 ‘영적 전쟁’의 증거”

미국의 한 목회자가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는 '영적 전쟁'의 증거라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텍사스 주 플라노에 소재한 프레스턴우드 침례교회의 잭 그레함 목사는 "세계의 지정학적 시스템은 중동과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생각해 보라. 이 작은 나라는 여기 미국 뉴저지 정도의 크기지만 엄청난 증오를 받고 있다. 왜 증오하는가? 나는 그 미움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미워한다. 결국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간증으로 싸워야 하며, 그곳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유대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것을 겁을 먹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와 기타 캠퍼스에서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지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촉발된 이 전쟁으로 1천163명이 사망했다. 하마스는 점점 커지는 대학 캠퍼스 시위를 높이 평가했으며, 한 관계자는 "오늘의 학생들이 미래의 리더"라고 말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시작한 이후 3만 3천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민간인과 테러리스트 전사를 구별하지 않고



잭 그레함 목사. ©The Christian Post

사상자 수를 위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이 수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유권자 1천497명을 대상으로 RMG 리서치와 협력해 서밋 미니스트리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2세대 유권자 중 거의 절반은 하마스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부당하다고 답했다. 또한 2세대 중 3분의 1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할 권리가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레함 목사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도덕적 확신에 뿌리를 두고 이스라엘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할 성경적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뿌리 깊은 연관성을 지적했다.

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

신다"면서 "그분은 말씀에 따라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국가로 세우시고 대대로 땅과 생명과 유산을 주셨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에 대해 영원히 감사한다. 성서와 유대 민족.. 메시아; 성경은 유대 민족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 민족과 엄청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지와 정치적 지지 사이의 구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편에서 서서 지지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인과 그들의 존재 권리를 지지한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은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 학살과 반유대주의 운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그러한 증오에 맞서야 한다"라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10월 7일 하마스 공격과 같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투쟁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10월 7일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일부 인질들의 가족을 만나 인터뷰했다"라며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미국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주저 없이 '우리를 잊지 말라'고 말했다. 인질을 잊지 말라. 우리로서는 여러분이 아랍인과 유대인 중 어느 정치적 편에

서든 누구나 테러리즘과 다가올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다. 모두가 그 점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위협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테러리스트는 그들을 반대하는 누구라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는 "테러리스트들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끝나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반대하는 누군가를 찾으려 온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는다. 세계의 지정학적 시스템은 중동과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는 기독교인과 유대인 간 역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이 분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몇 달 동안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반유대주의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교회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자고 촉구했다.

로버트 제프리스 달라스 제임스 침례교 담임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할 도덕적, 영적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도덕적, 영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목사는 2018년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 헌정식에서 개회 기도를 인도했던 바 있다. 이 행사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상징했다.

이매경 기자

## 영국, 망명 신청 탈락자 르완다로 첫 송환... “자발적 출국”

르완다법 부수적 차원... 520만 원 지원

영국이 아프리카 르완다로 불법 이민자를 보내는 이른바 '르완다법' 승인 이후 처음으로 송환이 실시됐다.

30일(현지시간) BBC 등 영국 언론은 정부가 전날 망명 신청 탈락자를 송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시는 이민자 한 명이 전날 영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 이날 오전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해당 남성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지난 해 말 영국 체류 신청이 거부되자 자발적으로 르완다행편을 신청했다. 영국 정부가 망명 신청에서 탈락한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송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의회는 지난달 22일 르완다 안전법 승인을 했다.

영국 정부는 망명 신청자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소진했다고만 말하고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

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대가로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5년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르완다 안전법은 오는 7월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송환은 해당 법의 부수적인 차원으로 이뤄졌으며, 자발적으로 르완다행을 택하면 최대 3000파운드(약 520만원) 지원을 받는다.

그림자 내각의 이베트 쿠퍼 외교장관은 "선거 전 속임수"라며 "(영국 납세자들이) 자발적 출국자 한 명을 비행기에 태워 보내기 위해 3000파운드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망명 신청자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소진했다고만 말하고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이혜원 기자

## 미국, 러 군수산업 지원 中본토·홍콩 기업 등 제재 발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여한 중국 본토, 홍콩 소재 기업 등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러시아의 무기 등 획득을 도운 제 3국 기업, 개인, 군수 산업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등 총 300건의 신규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미국은 많은 국제 파트너들과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에 중요한 물

자를 공급하는 중국 및 제 3국에 기반을 둔 단체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재무부는 "이러한 지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며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 등 20여개 기업이 포함됐다. 김예진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환경도 경기도 시활도 민도 활도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질 선도 공단  
폐기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해외송금도

자산관리도

월급통장도

# 하나 뿐인 내 편



 하나은행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0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광고-02911호(2024.04.15)  
/ CC브랜드 240411-0134

# 미국 종교자유위 “北·中 등 종교 자유 침해… 특별우려국 지정을”

### “2023년 北 종교자유 상황, 세계 최악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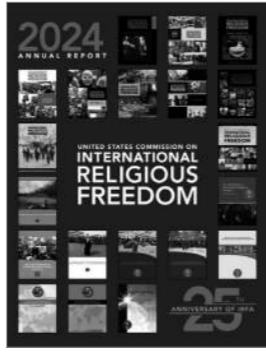
미국 의회 설립 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과 중국 등을 종교적 자유가 침해되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SCIRF는 1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북한, 버마(미얀마),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17개 국가의 ‘특별우려국(CPC)’ 지정을 권고했다.

1998년 제정된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IRFA)은 대통령이 매년 각국의 종교적 자유 상황을 검토하고 심각한 침해가 이

러지는 국가를 CPC로 지정하도록 한다. 고문이나 장기 구금, 실종 및 개인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 국무부가 지정 목록을 관리한다.

USCIRF는 2023년 한 해 북한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세계 최악 수



미국 의회 설립 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보고서. ©캡처 사진

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신교 신자들에게 대한 박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이들을 반(反)혁명 분자이자 반역자로 간주, 정치범으로서 제거 대상으로 봤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단순히 성경을 소지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관철하는 것, 나아가 개신교 신자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고문과 강제노동, 수감, 처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평안도 남쪽 통암마을에서는 개신교인 5명이 체포되고 성경을 몰수당하기도 했다.

같은 해 중국의 종교적 자유 여건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종교 단체로 하여금 중국 공산당(CCP)과 그 이념, 정책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종교 정책 시

행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기독교 교회와 이슬람 사원을 강제로 개조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도 빈번하다고 한다.

이번에 CPC 지정 대상으로 권고된 곳 중 중국, 북한, 버마(미얀마),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2곳은 이미 기존에도 지정된 곳이다. 이들 외 5개 국가는 신규 지정 대상으로 권고됐다.

USCIRF는 이 밖에 이집트와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시리아, 튀르키예(구 터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1개 국가는 국무부 특별감시대상(SWL)에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남영 기자

# 통일부 “북한 분주소장 회의, 일탈·위법행위 많다는 암시”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일탈이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암시라고 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주민들의 법질서 준수 필요성, 위법행위 투쟁 등을 강조한 것은 김정정에 대한 기층 조직 충성 결집과 사회통제 강화를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분주소는 북한 사회안전성에서 치안 질서를 담당하는 최하위 단위 기관이다.

회의에서 언급한 일탈·위법행위에 남한 콘텐츠 소비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국자는 “북한 법상 그것도 탈법행위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이 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리태섭 사회안전성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저해되는 온갖 위법행위와 비타협적 투



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는 2012년 11월 김정정은 집권 초기 이후 12년 만에 열렸다. 당시 김정정은 위원장도 참석해 기념사전을 썼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기층 치안조직 결속과 사회통제 강화를 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용국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결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 황우여 상임고문 체제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2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회의를 열고 ‘비대위 설치의 건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 ARS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91.81%로 비대위 구성이 가결됐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모두가 뭉쳐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한다”며 “황우여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황 상임고문은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관리형 비대위’ 수장 역할을 맡게 됐다. 그는 “노년·장년·청년·여성, 지역을 고루 반영해 7~9명의 비대위원을 구

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내대표 선거가 9일로 연기되면서 비대위 공식 출범은 다음 주로 예상된다.

황 상임고문은 “상임 원내대표와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원을 인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전국위의장은 “여당이 정상화돼야 윤석열 정부도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국 기자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강조했다. 박용국 기자

# 정부, 민원공무원 보호 위한 ‘악성민원 대책’ 마련

### 민원 전화 자동녹음·평가 도입... 피해 공무원 법적 지원

정부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등 17개 부처는 2일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민원 전화 자동 녹음 ▲공무상 평가 신설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민원 대응 전담팀 운영 ▲민원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먼저 앞으로 행정기관에 걸려오는 모든 민원 전화가 자동으로 녹음된다. 공무원이 별도로 녹음 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 등 위법행위가 있으면 공무원이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6월 이내 공무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과 정서안정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 공무원이 원할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한다. 이나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각 기관에 악성민원 전담팀을 두고 법정부 차원의 전담대응팀도 운영된다. 피해 공무원 상담 핫라인도 신설된다.

그밖에 민원공무원 인센티브로 승진 가점과 수당 가산금이 주어지며, 민원 창구에는 경력자 우선 배치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과 월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 정부, 의료계 대화 재촉...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나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시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담행동 대책 관련 회의에서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확충, 특별회계 신설 등 재정 투자 방향이 논의됐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수련환경 개선에 나선다. 조 장관은 “전공의 근무여

건 개선과 수련 질 향상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 임원환자 수와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평균 대비 각각 7.8%, 4.1% 감소했다. 전체 종합병원도 입원환자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운영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나래 기자

건 개선과 수련 질 향상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 임원환자 수와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평균 대비 각각 7.8%, 4.1% 감소했다. 전체 종합병원도 입원환자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운영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나래 기자

# 선관위, 감사원 감사에 고의 방해 정황 드러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고의로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사정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지방선관

위 경력채용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된 인사담당자의 업무일지를 확보했다. 이 일지에는 과장급 직원이 감사 전 삭제된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고위간부 아들 채용 과정에서

도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이 문건 파일을 지시한 사실이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특혜 채용 사실 확인에 필수적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리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

사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선관위가 전현직 직원 자녀에게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들은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나래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쿨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 소아청소년 7명 중 1명 정신 장애 겪어... 전문가 도움 시급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7명 중 1명은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6세-17세 소아청소년의 16.1%가 평생 한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했고 7.1%는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이번 조사는 6,2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아는 부모를 통해, 청소년은 본인과 부모를 상대로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소아 4.7%, 청소년 9.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병률이 높았다.

가장 많이 나타난 장애 유형은 특정 공포증(5.8%), 적대적 반항장애(4.1%), 분리불안장애(3.8%) 순이었다. 현재 유병률로는 적대적 반항장애(2.7%), 틱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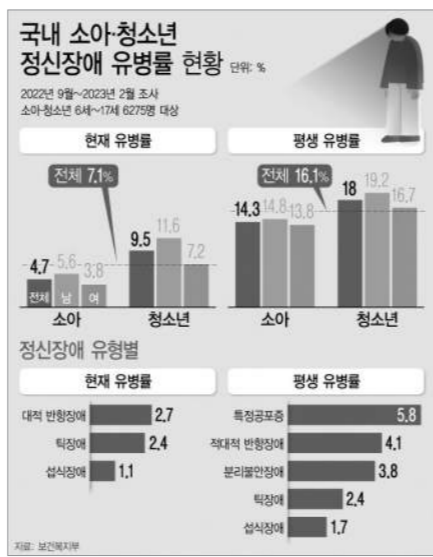
(2.4%), 섭식장애(1.1%)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소아청소년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 1년간 이용률은 4.3%, 평생 이용률은 6.6%에 그쳤다.

미이음 이유는 "아직 서비스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소아 60.1%, 청소년 60%)",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 같아서(소아 43.4%, 청소년 52.8%)" 등이 지적됐다.

이에 김봉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이용률 제고와 주기적 추후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살사고 경험률은 1.0%(청소년 1.9%), 자해 경험률은 1.4%(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100만 명 심리상담 지원,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16.1%는 정신장애를 경험했고, 이 중 7.1%는 현재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SNS상담 개통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나래 기자

# 수도권 전세사기 조직 적발... 110억 원 상당 편취

무자본으로 주택 428채 매수, 전세보증금 부풀려 편취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 총책과 조직원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직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동원한 이들은

'00주택'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세운 뒤 부동산 중개업자와 컨설턴트들을 활용해 주택 매입에 나섰다. 이들은 매도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회유했고, 세입자들에게 약정 금액보다 비싼 전세가를 불렀다.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받은 뒤 실제 매매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리베이트로 가로챈 것이다. 통상 2000만~5000만원(최고 80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편취했으며, 이를 물건 취득세, 등록세,

수당 등으로 사용하거나 관련 업자들에게 분배했다.

경찰 수사 끝에 조직 총책 A(43)씨와 부장단 5명 등 6명에겐 사기,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가 적용됐고, 부장단 5명이 구속됐다. 또 조직원,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113명에게도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피해자는 대다수 2030 청년층이었으며, 일부는 보증 보험 미가입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110억원과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나래 기자

# SK하이닉스 "글로벌 협업으로 AI 메모리 솔루션 선도할 것"

"AI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설 것"

SK하이닉스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차세대 AI(인공지능) 메모리 솔루션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지원 사장(사진)은 2일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업해 세계 최고의 고객맞춤형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AI 반

도체 강국으로 올라서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늘려 신규 공장 R&D 역량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투자 계획으로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20조원 투자 ▲미국 인디애나 AI메모리 패키징 공장 5조원 투자 ▲충북 청주 D램 신규공장 20조원 투자 등이 있다.

청주 신규 M15X 공장은 TSV 기술 기반의 HBM 일괄 생산이 가능한 6.3만평 규모로, 2026년 3분기 가동을 목표로

한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415만평 부지에 단계적으로 랩들이 구축되며, 국내외 소부장 업체들과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국 인디애나 공장도 2028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AI 메모리 패키징 시설을 구축 중이다.

박 사장은 "차별화된 AI 기술 경쟁력으로 주요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메모리를 공급하며 글로벌 기술 영토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래 기자

# 美기준금리 인하 지연에 국내 은행 대출금리 오름세

미국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하 시기가 밀리자, 국내 은행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30일 평균 3.933%로 한 달 새 0.169%포인트 올랐다. 1년물과 2년물도 각각 0.1%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5년)도 하단이 3.43~5.906%로 집계되며 한 달 새 0.24~0.35%포인트

오른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품 파열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며 인하 시기도 지연되고 있어, 명확한 인하 시점 전까지는 대출금리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완화로 2년물 국제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임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

상 기대 확대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면서도 "6월 FOMC 이전까지 10년 금리는 연내 0.2% 인하를 반영한 4.4~4.8%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준은 1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고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을 이유로 당분간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는 다음 달부터 줄이기로 했다.

이나래 기자

# 공정위, 카카오-SM 주식취득 결합에 "멜론 자사우대 방지"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 취득 간에 대해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주요 조건은 멜론에서의 자사 우대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다.

2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조건부 승인했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은 ▲경쟁 음원 플랫폼에 대한 부당한 음원 공급 거부 금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멜론 내 자사 우대 여부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이번 결합으로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과 유통,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였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멜론 경쟁사에 음원 공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멜론에서 자사와 계열

사 음원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노출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독립 기구를 통해 최신 인기 음원 노출 등에서 자사 우대 여부를 정기 점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 자사우대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기업결합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 하이브 박지원 대표 "멀티레이블 보완하겠다"

어도어와의 갈등엔 "필요한 조치 취하고 있다"



하이브 대표 박지원(사진)은 2일 "멀티레이블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약속했다."

2일 박 대표는 하이브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멀티레이블을 개척하며 많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번 사안으로 (멀티레이블에 대해)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고도화를 위

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고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도어 경영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감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멀티레이블 시스템은 한 지붕 아래 여러 레이블이 콘텐츠를 양산해 사업을 다각화하는 구조다. 미국 3대 음반사도 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하이브가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운영과정에

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개선해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외 하이브 레이블은 11개에 달한다. 2021년 설립된 어도어는 하이브가 인수 형태로 편입한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처음 세운 레이블이다. 하지만 뉴진스에 바로 앞서 데뷔한 '브세라핌'이 속한 쏘스뮤직, 최근 데뷔한 '이일릿'이 속한 벨리프랩 등과 민 대표가 갈등을 겪으면서 사달이 났다. 이나래 기자

# K-eco with ESG

**ENVIRONMENT**  
탄소중립경영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환경경영

**SOCIAL**  
사회책임경영

포용적 환경서비스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책임경영

**GOVERNANCE**  
준법윤리경영

공정준종의 가치를 구현하는 준법윤리경영

**한국환경공단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위해 ESG경영을 실천합니다**





#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생명윤리적 고찰과 정책적 제언(1)



김수정 원장  
내과 전문의,  
성누가병원 내과 원장

생명을 확대하는 사회에서,  
생명을 확대하는 사회로

**I. 서론**

한국의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문제, 가족 안에서의 성불평등,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이 꼽히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지원, 청년 지원,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꾸준히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만으로는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 추이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어 보인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은 절대적으로 높아졌고 2011년 이후 빈곤율과 분배지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청년 실업률은 2017년 이후 하락 추세이다. 또한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와 양성 불평등은 쇠퇴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기존의 원인 분석들과 그에 따른 대책들은 경제, 사회적 원인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민 사이에 만연한 의식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평가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저출산 현상의 한 원인으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의 추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1996년에야 산아제한 정

책을 뒤늦게 폐기했던 정책 실패도 들 수 있는데, “뒤편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가 국민의 의식구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에서 국민의 가치관 변화를 이끌기 위해 종전보다 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인식 개선 사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비혼주의, 반출생주의(antinatalism) 등 가정과 결혼, 출산, 육아, 새 생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주의가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이론에도 배치되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주의는 우물, 불안, 낮은 행복감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낮은 우호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따른 생명존중의식 약화와 돌봄의 인프라 및 가치 인식 부재는 OECD 1위의 높은 자살률과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생명을 낳고 기르고 돌보는 데에는 고통과 대가가 따르지만 기쁨과 행복도 있다. 출산에 대해 어떤 면을 주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출산에 대해 생산적이고 목적이 있다고 인지하며 주변의 지지적인 돌봄과 관심이 긍정적인 경우 여성이 분만 중 느끼는 주관적 통증의 정도가 줄어들고 자신이 안전하며 통증에 대처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한 당사자와 주변인의 인식이 확대와 배려인지, 부담감과

배척인지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과 생명 탄생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생명윤리 관점에서 다루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중심주의와 생명경시문화에 따른 모성과 부성, 아동, 나아가 가정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저출산 현상에 대한 생명윤리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

**가. 양성 사이의 균등하지 않은 권리와 책임**

저출산 문제에 있어 성불평등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인구감소 문제를 여성만의 책임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주장도 나온다. 저출산 해법이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권리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재생산권 논의도 활발하다. 특별히 인권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혼, 여성 할례, 남아 출산 강요, 강요된 낙태 등은 폐지되어야 할 습관이다. 여성들이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는 여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권리를 없이 책임만을 강요받아 온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 문제를 여성의 선택에 대한 문제로만 국한시킬 때, 임신, 출산이 보호되고 촉진되게 한다는 오히려 방지되고 억제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 봐야 할 것이다. 낳을 권리보다는 낳지 않을 권리가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논의가 과연 여성에게 유리하기만

한 일인지도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임신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는 남성의 의무보다 여성의 낳지 않을 권리에만 집중한다면, 여성은 어떤 선택을 하든 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낙태권만 가지고 다투기보다 낙태율이 적은 나라들에서 어떻게 모성을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80%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만 낙태율이 적은 선진국에서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여 여성과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부에게는 거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미혼모 혼자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어 낙태와 영아유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임신과 출산과 양육은 여성 스스로만의 힘으로, 여성 혼자만의 선택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임신이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임신이라는 사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기여로 일어난 일이며 수정란과 배아, 태아는 여성만의 유전자 아닌 남성의 유전자도 50%를 차지하고 있는 새로운 개체인 생명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성과 생명을 보호하기보다는 이미 온 생명을 희생시키는 쉬운 방법을 택해 왔다.

**나. 모성과 부성, 아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최근 한국 사회에서 “맘충” 등의 혐오 표현에서 볼 수 있듯 모성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났다. 또한 전업주부에 대해 자기 인생을 다 못 산 사람으로 ‘무재(loser)’ 또는 ‘집에서 노는 사람’, 여성의 당연한 역할 또는 기능으로만 인식

하는 현상이 있다. 2019년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우울, 불안, 절망감 척도가 기준점 이상으로 나온 경우가 각각 45.2%, 39.6%, 60.9%였고, 이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전업주부의 비율은 2002년 52.5%에서 2012년 44.6%로 떨어졌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있지 않다면 모성 이데올로기에 희생되어 자기 삶을 다 못 산 안타까운 사람으로 인식하며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현상은 여성들에게 만연하다.

이는 여성의 교육 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와 좌절, 그리고 여성들의 자기희생 역사와 그에 대한 반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학 분야의 개인주의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출산으로 아이를 갖는 것보다 출산을 지연시켜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이며 보상이 크다면 여성은 무자녀 가족이나 한 자녀 가족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최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의 경우, 어릴 때부터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교육받고 사회에 나오게 된다. 그러나 임신, 육아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선배들을 통해 그들은 보아 왔다. 남성은 임신, 육아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에 더 몰입 집중할 수 있기에 자기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여성은 임신, 육아에 매이게 되어 경력 단절을 겪거나 절충적 성취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임신, 출산을 포기하는 MZ 세대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 대안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모성에 대한 평가 절하는 모성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본다.

개인의 행복과 삶의 의미는 사회적 성취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단지 ‘희생’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여러 측면 중 한 측면만을 보는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여성들의 구술생애사를 들어 보면 모성은 여성들의 성장 과정의 자원으로 활용되며, 타인에 대한 이해력과 포용감, 삶에 대한 책임감, 생명의 고귀함 등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요한 인격을 가진 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함께 하는 경험은 자기 희생, 자아실현의 이분법을 넘어서, 자아확장의 길을 열어 준다.

인격주의 의학을 주창한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에 따르면 여성에게는 두 가지 자연스러운 욕망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결혼해서 엄마가 되어 자기의 조그마한 세계를 만들고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을 좋아하면서, 다른 하나는 그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 넓은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그 세계 속에 동참하고 싶은 욕망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후자만 이 강조, 미화되고 전자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사회에서의 성공, 경력만이 여성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기존의 남성들이 가졌던 편견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경쟁사회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프레임에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 가두고 있는 것이다. <계속>

## 0.0001%를 위한 기도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1969년 7월 16일, 달을 향한 인공위성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되었습니다. 우주선에는 선장 닐 암스트롱, 사령관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달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이 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7월 20일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에

내려 걸어 다니면서 최초로 인간의 발자국을 달에 남겼습니다.

이 인공위성을 달에 착륙시킨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Wernher von Braun(1912-1977)박사는 인공위성을 달로 쏘아 올리기 직전, 미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확률은 99.9999%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0.0001%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99.9999%는 완벽에 가까운 숫자지만, 세상에 완벽이란 없으므로, 0.0001%의 오차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수 없

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0.0001%는 인류의 한계를 넘어선 신의 영역이므로 모든 미국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최첨단의 최고 과학자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과학에는 완벽이 없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Braun 박사는 1912년 독일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폴란드 농림부 장관이었고, 어머니는 영국 왕실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공부했으나, 꿈은 우주에 있었습니다. 그는 베를린 공대에서 액체 연료를 전공한 후에 세계 제 2차 대전 때, 육군 병기국(兵器局)에 배속되어 히틀러의 명령을 받

고 영국을 공격한 탄도 미사일 V2를 제작해서 영국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기가 꿈꾸었던 일이 살상용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브라운을 체포했으나 처벌하지 않고,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시민권을 주고, 국가 항공우주국 NASA에 배속시켜 인공위성 연구에 전념케 했습니다. 인재(人才)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발휘하지 않고, 포용해서 전공 분야에서 일하게 한 미국의 포용력이 미국을 위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인공위성 연구에 전념하던 무렵인 1959년,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였고, 2년 후인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유인(有人)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실로 미국은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확실하게 뒤쳐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여러 언론과 과학자들은 어떻게 소련을 따라 잡을 수 있겠느냐며 따졌습니다. 그때 브라운은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초등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한 탓이다.” 그의 대답에 기자들뿐만 아니라 교육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

옛날 그리스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플라톤의 아카데미 입학시험에서 기하학을 모르는 학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인문학이 자연과학을 소홀히 하면 재앙이 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후 소련보다 앞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집념을 가진 브라운 박사는 케네디 대통령의 꿈이었던 ‘60년대에 인간을 달에 보

낸다’는 계획을 실패해 보았습니다. 브라운 박사 주도로 달 표면에 인류의 발자국을 남기고, 성조기를 꽂고 온 이래 50년이 지났지만, 미국을 포함한 그 어느 나라도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 선진국들이 인간을 다시 달에 보낼 날이 오겠지만, 0.0001%의 범칙은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딘 것은 브라운 박사의 0.0001%을 위한 기도 부탁 덕분입니다. 우리는 0.0001%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앙 고백합니다. 살렘.

세상에 행복을 **가** 놓는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성공해야 행복한가’ ‘행복해야 성공한 것인가?’

신성욱 목사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행복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불행하기보다는 행복하기를 갈망한다.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서 평생 행복이 뭔지를 한 번 경험하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 그런가 하면 행복한 순간들을 맞보긴 하지만 금세 불행한 환경이 찾아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번 찾아온 행복을 영원히 붙잡아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행복은 원래 방랑벽과 바람기가 있어 한 개인이 계속 붙잡아 둘 수 없다.

이상한 것은 행복이란 파랑새는 잡아두려 하면 할수록 훨훨 날아 가버리는 못된 버릇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행복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잡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멀어져가는 수가 많다. 리처드 J. 라이더와 데이비드 A. 사피로가 공저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복을 풀어줘 보라. 그러면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다. 평안이다. 이런 책은 이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제값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언젠가 <포브스(Forbe)>가 출간 75주년을 기념하여 ‘왜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불만인가?’라는 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다. 거기 실린 유명한 저술가들의 글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의 삶에 뭔가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빈자리는 세상의 어떤 신비로운 마법이나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TV 연속극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갖고 살아간다. ‘언젠가는 행복하리라!’는 꿈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성공하지 않고 행복한 경우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과연 성공하면 행복할까? 성공자들에게 물어보라. 행복한지를, 모두가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즉시 허탈감에 빠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평가를 성취하는 순간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애당초 우리는 이루지 못할 꿈을 꾸어온 셈이다. 내 경험상 행복과 성공에 대해 깨닫고 정리한 바가 하나 있다. ‘성공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사실 말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다.

‘이기는 자가 최후에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최후에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란 말이 있듯이, 성공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가 성공한다. 자. 알고 보면 별것 아닌 얘기 같은데, 이 소중한 진리를 대다수는 잘 모르고 있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행복을 목표로 정하란 말이다. 추구하던 성공을 성취한 뒤 갈등과 비극과 불행을 경험하는 이들의 예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행복한 자들은 남들이 볼 때 성공해 보이지 않더라도 늘 웃고 감사하며 산다.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고대하고 사는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다.

인터넷 기사에 내 눈길을 끄는 사연이 하나가 떠서 읽어보았다. 베트남 매체 소하(SOHA)는 타이닝 쩡(Thanh Tuan, 30)의 근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2016년 집에서 뛰안의 차에서 발생한 불이 집으로 옮겨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지만, 위층에서 자고 있던 엄마를 떠올리고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엄마를 구한 뉘안은 문에 다다랐을 때 옆에 있던 오토바이에 걸려 넘어졌고, 자신은 안에 갇혀버렸다. 이에 엄마는 경미한 찰과상만 입은 반면, 뉘안은 심한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 실려 갔다. 그는 몸의 80% 이상에 화상을 입었으며, 가슴 앞쪽 피부 전체가 심하게 훼손됐고 어깨와 손은 거의 타버렸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다. 의사는 뉘안의 두 다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절단하지 않으면 생존율이 5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기에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결국 그는 다리를 절단했다. 뉘안은 “솔직히 너무 힘들다. 굶어 죽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엄마를 살려 행복하다”고 말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얘기가.

비록 자신의 몸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누가 봐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비참한 사고를 온몸으로 경험한 장애인 신체가 되었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어머니를 살렸기에 행복해하는 그야말로 진정 성공한 사람이다.

장세기 39장은 행동한 한 소년을 소개한다. 요셉이다. 우리말로는 ‘행통했다’(창 39:2, 3, 23)이지만, 영어로는 ‘be successful’ 즉 ‘성공했다’는 말이다. 비록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가정 총무의 직책을 맡긴 했으나, 여전히 그는 노예 신분이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결코 성공한 자가 아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성공한 자’라고 거듭 표현한다. 이유는 뭘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뉘안은 비록 자신이 처참한 장애인이 되었다더라도 어머니가 무사하니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행복한 자가 성공한 자가 맞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하시는 우리가 성공자가 아니면 누가 성공자란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해야 정상이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걸 제대로 인식한다면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함을 꼭 기억하고 살자.

## 社 說

### 한국교회와 거꾸로 가는 NCKK 인권센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기독교계와 정반대되는 행보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내부에서까지 문제가 된 NCKK 인권센터가 이번엔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고 나서 다시 구설에 싸였다. 교계 반동성에 단체들은 NCKK에 참여하는 교단을 향해 “인권센터를 NCKK에서 퇴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제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을 가결했다. 총남에 이어 두 번째고,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이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결정은 지난해 발생한 ‘사이초 교사 투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권을 위축시켰다는 논란이 촉발된 뒤 9개월 만에 이뤄졌다. 하지만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인권 보장에 편중된 데다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태생적 문제점으로 인해 제정 초기부터 폐지 요구가 빚뻗었다.

그런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NCKK 인권센터가 또 탄지를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폐지 당일인 26일에 “학생의 인권은 폐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비판하던지 지난 29일엔 직접 조현원 서울시 교육감의 항의 농성 천막에까지 찾아가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NCKK 인권센터는 성명에서 “노동자,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고, 이제 학생들 인권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참으로 참담하고 비극적”이라고 했다. 이어 “나이, 성별, 국적 등 모든 것을 떠나 삶의 존귀함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인권센터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조례와 아무 관련도 없는 “노동자 장애인 인권 유린”까지 거론한 건 좀 다른 뜻으로 해석된다. 즉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지로 꺾어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사이초 교사 투신 사망 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게 된 게 현 정부 탓일 리 없다. 굳이 정치적 해석을 한다면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례의 폐해를 알게 된 사도민을 대표해 사도의회가 폐지를 결정한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NCKK 인권센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몇몇 교회의 목소리는 결코 신앙의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얼마 되지 않는 몇몇 소수의 과대표된 목소리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교계 전반의 목소리와 폐지청구안을 제출하

는 데 앞장선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을 반 신앙적인 소수로 규정해 몰아세운 것이다.

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의견을 말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관점에 따라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생각과 견해와 다르다고 이를 신앙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고, 또 소수라며 무시하는 건 오만이고 영적인 독선이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생각이 한국교회 사분오열 분열의 씨앗이 될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굳이 숫자를 따지자면 NCKK야말로 한국교회 소수집단이 아닌가.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이런 논리야말로 예규메니칼 정신에 어긋난다는 쓴소리를 들어도 싸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감기장-예장 통합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목회자 연대’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NCKK를 향해 “더 이상 기독교 연합단체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반성경적 인권 주장에 동조한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발맞추어 당장 폐지하라”고 했다. 이어 “예장 통합은 이번 109회 총회에서 NCKK 총무를 소환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라”며 “기감과 정책적으로 연대하여 NCKK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CKK는 인권센터가 임방야에 오르내릴 때마다 매번 똑같은 말로 방어에 나서 왔다. 차별금지법 찬반 논란 때도, 쿼어축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기감의 이동환 목사 재판 때도 NCKK 인권센터가 NCKK 산하에 있지만, 독립적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자체 기구임을 인정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단정시 하는 건 자기 부인이자 NCKK 스스로 모순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예장 통합과 기감은 NCKK 100년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심 교단이다. 그러나 NCKK 내부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교단 총회에서까지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이들 교단 목회자들이 주축이 된 반(反) 차별금지법-동성애단체가 자기 교단을 향해 NCKK를 탈퇴하라고 요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NCKK가 아성정한 태도를 취하는 동안 NCKK 인권센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교회 전체 정서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은 100주년을 맞은 NCKK의 오늘과 앞날에 결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 안고 갈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NCKK가 자체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주요 교단으로 하여금 NCKK를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NCKK 100년 역사에서 가장 후회할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장애인·어르신 이동 문턱 낮춘다” 서울시,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 경사로 설치지원

서울시가 올해 5월부터는 장애인, 어르신 등이 동약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1층에 자리한 생활 편의시설을 편하게 접근하고,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모두의층\*서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간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상가에 존재하는 문턱, 계단은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캐리어를 끄는 시민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진정 사례로 접수된 건 중 시설물 등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이 58.9%를 차지할 정도로 작은 단차가 주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KB증권, 비영리단체 '모두의층 이니셔티브(준)'와 협력을 통해 5월부터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음식점, 잡화점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생활편의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KB증권 임경식 상무, 모두의층 이니셔티브 임성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층\*서울'기부금 전달 및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이동약자의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제약하는 문제의 공동해결 ▲경사로 설치 지원대상 발굴 및 경사로

설치 지원 ▲경사로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 대시민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상점 앞 경사로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 생활편의시설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점주, 프랜차이즈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이동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배려,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KB증권은 경사로 설치를 위해 7천만원을 기부하여 이동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지원한다. KB증권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소통이 담긴 다양한 사

회공헌활동에 앞장서 오고 있다. 특히 사회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가치 창출 및 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현 시점의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의층 이니셔티브(준)'는 서울시와 '모두의층\*서울'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며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와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모두의층 이니셔티브(준)'는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임성택), '턱없는 세상'을 위한 사단법인 무의(이사장 홍순희), 브라이튼건축사사무소(대표 이종현)가 이동약자 접근편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립을 준비중인 비영리단체로서 2023년 성수동 일대를 중심으로

'모두의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이동약자가 공공이용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이동약자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서울시는 이동약자들도 편의점, 음식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상점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모두의층\*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며 "이번 협약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민관이 함께 이해하고 전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시는 이동약자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 ‘미래의 주인공’...경기아트센터 경기도 어린이 축제 4·5일

경기아트센터가 어린이날을 맞아 4·5일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슬로건으로 어린이를 위한 '경기도 어린이 축제'를 개최한다.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어린이 축제'는 오는 4·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아트센터 광장, 대극장·소극장 등에서 진행된다. 먼저 대극장에서는 5일 오전 11시오후 3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키즈콘서트 '플라잉 심포니'가 진행되며, 소극장에서는 3·5일 경기도극단의 연극 '단명소년 투쟁기'를 공연한다.

아외무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아카펠라, 마술 등 야외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에는 경기도무용단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어린이에게 경기도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광장에서는 에어바운스 등 놀이시설과 각종 만들기 프로그램 등의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도물관 지하 열린무대에서는 한국도자재단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도자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번 '경기도 어린이 축제'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광장 일대의 각종 놀이체험 프로그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별도의 예매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어린이날 주간을 맞아 아트센터의 광장 및 부대시설을 도민과 어린이에게 개방하고,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최대 50만 원 지원

2024년도 1차 접수...  
6월 7일(금)까지  
지난해 12월 응시면접자  
소급 적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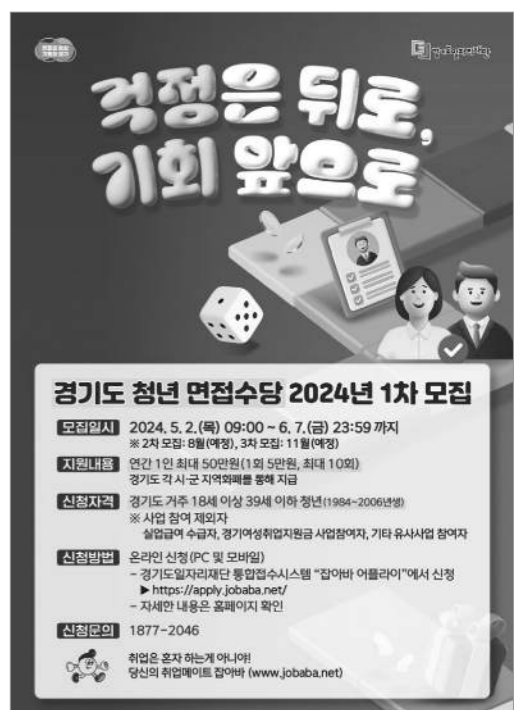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2024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4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5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고용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 후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데에 도움을 달아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우리 기자

## 자원봉사 중 피해 입으면 보험 청구 가능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 체결 및 보장 개시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통합·표준화하고 보장성과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였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 활동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사고 및 피해 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자원봉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

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등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다양한 민간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과도 연계해 각종 나눔·봉사활동 시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 교육자료 및 안전물품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서든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최신간  
NEW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도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목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빛나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부대(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어달린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기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열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훈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었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구주 예수의 선물이다. 복음이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샘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검손과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여 믿어지게 하는 생명수를 듣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홍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사 이재훈 목사.**  
소: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일 시: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숙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 화: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훈)

너희는 마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 전도용 사랑의 건빵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다니엘서2장3절)

믿을 수 있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금품제과 제품입니다!

심희승 대표(화창)  
010.9289.2442. 02.2273.7247.  
신한은행.110.191.288484.

문의: 010 9289 2442

##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목회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사택- 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 1.청정지역 입니다
- 2.교회,기도원,수련원,요양원, 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비산동  
교회소속

##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 교회건축&리모델링 세미나

주제 \_ 바라보는 교회건축

**2024.04.30(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2024.05.07(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3F 포럼 2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 2호선, 동백역 1번출구 도보 15분]

- 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기념품 증정)
- 우리은행 \_ 1005-604-628807 [예금주 : 교회건축포럼]
- 문의 및 등록
- 전화등록 : 070-4355-3308
- 문자등록 : 010-3966-1463
- 문자등록시 (1.교회명 / 2.등록자명(직분) / 3.참석인원 / 4.핸드폰번호)
- info@cbuild.co.kr



설계

(주)아진건축사사무소 최두길 대표

- 팬데믹 이후의 교회성장을 위한 설계
- 뉴노멀로서의 교회공간의 복합화
-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공간전략
- 신재생 녹색 환경의 교회



미디어

(주)크리스시스템 박정민 실장

- 더 나은 유튜브 예배송을 노하우
- 방송장비 운영인력의 솔루션
- 대형 led 구축과 운영의 실제
- 알스스필링과 음향기술
- 연무대교회 7000여 조명 리뉴얼 사례
- 기독교 뮤지컬부터 방송 사례(수영교회/ 호신나교회)



인테리어

에스스리글로벌 최종민 대표

- 강력한 효율을 얻는 리모델링 사례 분석
-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활용
- 건축음향과 인테리어의 중요성
- 라운지의 카페, 레스토랑 솔루션
- 3D 시각화를 통한 아이디어 적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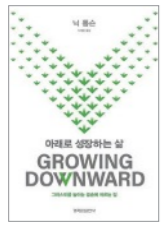
CM

(주)라미건축사사무소 이범구 대표

- 교회건축 전문가가 사례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
- 교회건축, 교회가 우선이다
- 교역자가 알 필요, 건축위원회가 알 필요
- 설계자의 업무, 사공사의 업무
-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에 이르는 길

## 신간 '아래로 성장하는 삶'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위로 성장하려고 외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분투한다. 하지만 인생의 가치는 위로 성장하는 데 달려 있지 않고, 아래로 성장하는 데 달려 있다. 아래로 성장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저자 닉 톰슨 목사(테네시주 코너스톤 장로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으며 '아래로 성장하라고 외친다.'

저자는 책 속에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할머니한테 설명할 수 없다면 어떤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나는 자적인 성향이 강하다. 나는 신학책을 읽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한다. 이상하게도 나는 거창한 생각이나 말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되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내게 엄

연한 현실을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헬라이어 페리코레스의 어원학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에 관한 20분간의 강론을 시작하려고 하면 다섯 된 우리 아이는 즉시 무관심한 기색을 드러낸다. 나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나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진정으로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겸손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미덕이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겸손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그 개념의 복잡성보다는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더 관련이 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겸손의 행위의 관점에서 종종 설명된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겸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정의했다. 겸손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했다.

이어 "겸손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낮아지려는 성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 겸손함을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이어는 종종 '낮은'으로 번역된다. 이 말은 땅바닥에

앞드려 절한다는 개념을 전달한다. 성경은 '겸손한 자'와 '고만한 자'를 날카롭게 대조한다. 겸손의 낮아짐이 외적인 물리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교만의 높아짐이 외적인 속성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겸손은 영혼의 성향을 가리킨다. 이것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십령'이 가난한 자로 일컫으신 이유다. 겸손의 본질은 '영혼의 낮아짐'이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은 잠언 4장 23절과 같은 구약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의 행위와 말이 모두 마음에서 비롯한다고 가르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겸손은 낮아진 마음을 가리킨다.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을 비취볼 때 생겨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으로 일컫는 것이다. 윌리엄 팔리는 겸손을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이 정의는 겸손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지만, 사실 상 그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겸손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아가 하나님께 매료됨으로써 야기되는 낮아지려는 성향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 형성된 영혼의 내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것은 보는 능력이 아닌 봄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와 실천

### 신간 '능력있는 기도'

현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며 기도 없이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더욱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능력있는 기도가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때에 저자 우경식 목사(당진성결교회 위임 목사)는 성경적으로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성경적인 기본과 원리를 가르쳐주며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기도의 모형을 소개한다. 또한,



목회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과 동행한 기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결과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깊은 뜻은 무엇일까? 기도를 통한 문제 해결은 신앙의 동기이며 출발점일 뿐이다. 문제 해결이 또 다른 신앙 성장의 출발점이 되어야 참된 문제 해결이다. 오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기도하거나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미신과 신앙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미신은 내 문제를 위해서 어떤 신을 달래고 무언가 바쳐서 원하는 것을 더 얻거나 쟁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 스스로를 쳐 복종하게 하는 부단하고 헌신적인 행위와 순종"이라고 했다.

이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며 인도자이심을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목적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

자이시며 인도자라는 사실이다. 참된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도는 진실하게 감정을 다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 또는 영혼을 쏟아내는 일로서 성령의 힘과 지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그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목적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준다. 기도자가 원하는 그대로 반드시 응답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최상 응답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기도자가 원하는 것이 기도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아침 1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

눈뜨자마자 하는 행동이 나의 하루를 결정한다?  
책 '아침 1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의 저자 류한빈은 사회초년생이던 1년 차 수의사 당시 공황발작이 올 정도로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하루를 버티기에만 급급했던 생각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마냥 버티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데 에너지를 쓴 결과였고. 이렇게 에너지의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도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265~266쪽)  
제목 그대로 이 책은 아침에 눈뜨자마자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천해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 30가지가 담겨 있다.  
작가는 무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지배하는 아침

기상 시간을 활용하면 더 활력 있고 더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퇴근 이후 저녁 시간 활용법을 다룬 작가의 전작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은 국내 자기계발 도서로는 이례적으로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러시아 등 6개국에 수출된 화제작으로, 이번 책은 작가가 3년 만에 내놓는 후속작이다.

조수원 기자

## 5월, 작가들의 말말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본적도 없는 과거의 인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살게 되는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관한 욕심을 벗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지, 이기적인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이를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기뻐하는지, 정말 신기하고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 사건은 한번 태어났던 인간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신비한 변화입니다. 복 받고 위로되는 말씀이 담긴 것이라면, 무겁고 버거운 말씀 또한 당신 것입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은 나를 피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축복과 위로의 말씀 또한 그런 다른 누군가에게만 임한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기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부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크게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는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 주관자는 하나님 이시기에 자녀를 나의 작품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나의 열심으로만 빛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앞뒤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질서 가운데 다스리고 훈육하는 현상이 때로는 어설피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고,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순종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음이 또한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신부로서 최고로 잘 사는 비법은 바로 내 남편의 재산목록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재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육이 무너진 만큼 영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성공을 이루었을 때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을 살리고 육신도 살리는 길입니다. 결혼생활이 슬프고 괴로운 것은 배우자와 식구들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편하게 살려고,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이방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달아서 자복해도 내일 또 말씀을 보면 새롭게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죄를 자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인생입니다.

**크리스천투데이**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옥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1)

눅 15: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인간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비유이지요.

리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목사시라는 거예요.

뉘요. 함께 기뻐하자고 그런데 사실 양이 더 기쁜 거 아닙니까. 양이 살았잖아요.

버린 양이 누구인가. 그리고 99마리의 양은 누구인가. 7절에 나오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누가복음 15 장에는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눅 15: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잃으면...

목자가 있는데, 어떤 목자가 있다고 해 봐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양들을 불러 모아서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눅 15: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부르짖었던 게 아니에요.

이 더 크다고 하십니다. 예배소교회 제공

“증인”이란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유력한 증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진정으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16) 3) 우리 증인의 효력은 우리가 살아갈 방식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유력한 그리스도인 증인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 그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Advertisement for Kwangdong Premium products. It features a man in a suit pointing at a product box labeled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Text includes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and details of the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which includes 30 boxes of premium products for free.

Footer for the advertisement. It lists the benefits of the premium products, such as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 and provides the phone number '1899-1260' for a free consultation.



##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95)

### 로마서 8장 16절

16.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The Spirit himself : 성령이 친히  
testifies with our spirit :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나니  
that we are God's children.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 ▶중요한 단어, 속어

testify 증명하다, 증거하다. testify against[for] a person...에게 불리[유리]한 증언을 하다.

testify to a person's ability...의 능력을 증명하다. //She refused to testify against her husband. : 그녀는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를 거부했다. // There are several witnesses who will testify for the defence. : 피고를 위해 증언을 할 증인들이 몇 명 있다. // He was summoned to testify before a grand jury. : 그는 대배심 앞에서 증언을 하도록 소환되었다. //He testified (that) he was at the theatre at the time of the murder. : 그는 그 살인이 일어난 시각에 극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구절에서 '성령'은 신격의 제 3위로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며,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증인으로서의 '영' 즉 믿는 사람 안에 공거처럼 채워져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 고린도후서 1:22

22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2 set his seal of ownership on us, and put his Spirit in our hearts 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 고린도후서 5:4-5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며,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령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4 For while we are in this tent, we groan and are burdened, because we do not wish to be unclothed but to be clothed with our heavenly dwelling, so that what is mortal may be swallowed up by life. 5 Now it is God who has made us for this very purpose and has given us the Spirit 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 에베소서 1:12-14

12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2 in order that we, who were the first to hope in Christ, might be for the praise of his glory. 13 And you also were included in Christ when you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Having believed, you were marked in him with a seal, the promised Holy Spirit, 14 who is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ose who are God's possession--to the praise of his glory.

### ▶해석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 로마서 8장 17절

17.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Now if we are children : 자녀이면 또한 후사

; then we are heirs-- : 곧 하나님의 후사요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 ▶중요한 단어, 속어

heir 상속인, 후계자. He fell heir to a large fortune. : 그는 많은 재산을 상속하였다. //Tom is my son and heir. : 탐은 우리 집 장남이다. //The company owner's son-in-law is his heir apparent. : 회사 사장의 사위는 사장 후임자이다. //She was an heir to her father's intelligence and her mother's grace. : 그녀는 아버지의 지능과 어머니의 우아함을 이어받았다. // He was recognized[acknowledged] as a lawful heir to the deceased. : 그는 고인의 법적 상속인으로 승인받았다 co-heir 공동상속인. indeed 참으로, 진실로. suffering 고난. share 몫 나누다, share in 공유하다. glory 영광. in order that--may : ~하기 위하여.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된 그 누구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뜻이다.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상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이 마련돼 있다는 것

은 확실하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유업이라는 '상을 타기' 위함이다. 결국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상을 타기 위한 과정이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았으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4) 즉,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땅의 유업을 말한다.

우리가 받게 될 유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and into an inheritance that can never perish, spoil or fade--kept in heaven for you"(벧전 1:4) 즉,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장차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조건부적이다. 그 조건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공동으로 당하는 것이다.

둘째, 디모데후서 2:10-12 : 10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여 함이로다 11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0 Therefore I endure everything for the sake of the elect, that they too may obtain the salvation that is in Christ Jesus, with eternal glory. 11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If we died with him, we will also live with him; 12 if we endure, we wi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isown him, he will also disown us;

### ▶해석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하심교회)

## 건강상식

# 고통의 당뇨발 막으려면 상처 등 예방이 최우선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은 유난히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암처럼 당뇨 어떤 변화가 생기는 병은 아니지만 당뇨병을 앓는다고 더 무섭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 바로 합병증 때문이다. 당뇨병 하나만 놓고 본다면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나무줄기에 겹가지가 생겨나듯 갖가지 합병증이 동시에 발병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당뇨발이다.

당뇨발은 당뇨병 환자의 15~20%에게 나타나는 합병증이다. 당뇨발이 심해져서 발목 위를 절단하면 5년 생존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 무서운 합병증을 피하는 방법은 꾸준한 관찰과 예방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뇨병을 앓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감각이 둔해진다. 또한 세균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발에 어떤 상처가 나도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 치유력과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저하된 상태라 가벼운 상처도 급속히 악화돼 궤양이나 괴저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심각한 경우엔 발목절단에 이르게 된다.

특히 당뇨발은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다. 또

혈당조절이 잘 안 되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일수록 발병 가능성이 더 높다. 당뇨발은 사소한 상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조금만 주의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 생활하면서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상처나 발톱을 깎다가 생긴 상처, 꼭 끼는 신발로 인한 물집과 굳은살, 뜨거운 목욕탕에서 생긴 수포 등을 특히 주의해서 관찰하고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한다.

과거엔 과사가 심하게 진행되면 발을 절단했을 당뇨발도 최근엔 죽은 조직을 걷어내고 허벅지 살을 이용해 다시 만들거나 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 무서운 합병증을 피하는 방법은 꾸준한 관찰과 예방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뇨병을 앓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감각이 둔해진다. 또한 세균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발에 어떤 상처가 나도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 치유력과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저하된 상태라 가벼운 상처도 급속히 악화돼 궤양이나 괴저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심각한 경우엔 발목절단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환자 스스로는 이 정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발가락 사이와 발 표면을 관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도현 온누리 정형외과 원장

**은혜 한 장**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5

기독교일보 www.cdaily.co.kr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교회오빠 바울이 보는 하나님 (3)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롬 5:10).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사람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라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大使)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후 5:18-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음이라(골 1:20)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목적을 완수하려 했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믿는 자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살후 1:12)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들로 입양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과연 저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들이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

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롬 8:15, 23, 9:4). 이것은 주님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代贖)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갈 4:4, 5)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하신 일들에 대하여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금욕하며, 스스로 분리하고, 많은 부분에서 헌신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되었고,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롬 5:8)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으며, 또한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것을 설명하기는 매우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종교가 그들의 신에게로 다가가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살후2:14). 종교가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성해 놓고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쉽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탄의 교묘함으로 인하여 이처럼 간단하고, 쉬운 복음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까닭에 예수님을 희생 헌물로 드리셔서 믿는 자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고전8:11). 주께서 구원하심이 없다면 누구도 그분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믿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 표현이 더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록 정하셨음이라(살전 5:9)

그러나 {주}께서 사랑받는 형제들이,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야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진리를 믿는 것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이라(살후2:13) <계속>  
창골산 봉목사

**향유육합**

주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나갔다. 200명분의 떡과 오렌지와 구운 달걀 등 점심 대용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도 급식을 기다리는 줄이 길기만 하다.

줄을 서는 모습이 오늘도 민망하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대비되어 몹시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줄을 서게 하지 않고 나누어 주기도 했다.

하지만 다름이 일어나고 땀방울까지 했다. 더 난감한 일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을 서고 표를 드린다.

오늘도 찾아 드는 생각에 마음이 무

**가던 길 계속 가라하시는군요**

갑기만 하다.  
“이 가난을 누가 끝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인생이란 빵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없이는 아니될 일일!”

말씀의 능력도 가진 것도 시설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씩씩했다.

그런데 머리를 다 밀어버린 한 형제가 먹을 것을 받아 들고는 내게 왔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동생들이 보고 싶어요!”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둘이 있어요.”

눈물이 아스팔트 위에 푹푹 떨어진다.  
그리고 내 손등에까지

“주님, 이 형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형제를 제게 보내셨군요! 기도가 필요한 자리라면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이지요! 가던 길 계속 가라하시는군요!”



**이야기하늘나라**

### 200번 도로

고속도로에서 교통경찰이 시속 30킬로로 달리는 차를 잡아 세웠다. 차 안에는 정복을 입은 구세군 사관님이 운전하고 있었다. 교통경찰이 정중한 태도로 말했다.

“수고하십니다. 사관님이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달리시면 안 됩니다.” 사관님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전 그저 표지판에 30이라고 적혀 있길래 제한속도인 줄 알고요.” 경찰이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건 고속도로 번호입니다.” 사관님은 놀라며 말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초보운전자라서-”

그런데 교통경찰이 뒷좌석을 보자 공포에 질린 신도들이 의자를 꼭 붙들고 있는 것이었다.

교통경찰이 그 신도들에게 물었다. “뒷좌석의 신도님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 신도들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뇨... 방금 전 이 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200번 도로를 지나왔거든요.”  
예수님닷컴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